표류와 표착 사이의 삶

: 윤금숙의 『여인들』을 중심으로

이병순 *

차례

1. 윤금숙의 존재 증명
2. 표류와 표착 사이의 삶
3. 경험과 기억의 재구
4. 맺음말

〈국문초록〉

윤금숙은 1950,60년대에 활발한 창작활동을 했으나 단독으로 연구된 바 없고, 문학사에도 한국전쟁기 여성종군작가로만 그 존재가 알려져 있는 형편이다. 이 글에서는 윤금숙의 생애를 정리하고, 창작집 『여인들』을 중심으로 그의 작품세계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우선 윤금숙은 육군종군작가로 알려져 왔는데, 그녀가 해군종군작가단에 가입 후 '여성'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뒤 다시 육군종군작가단에 입단하거나 활동한 기록을 찾을 수 없어 그를 육군종군작가로 규정해 온 기존의 연구는 재고되어야 한다.

창작집 『여인들』을 중심으로 윤금숙 소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해방 혹은 전쟁 등 당대 현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의 애환이 작품의 주제로 전경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여성/남성, 피해자/가해자, 선/악, 희생/폭력 등 인물 유형이 상당히 도식적이다. 윤금숙은 집중적으로 여성의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조교수

삶을 천착하였는데, 작품 속 여성들은 대부분 불행한 삶을 살고 있고, 그 이유가 '남성'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셋째는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에 부역한 문제를 다루거나, 전쟁을 독려하고 전의를 고취한 작품들을 통해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반공'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핵심어 : 종군작가, 여인들, 도식적인 인물, 전재민, 한국전쟁, 반공 이데올로기, 표류, 표착

1. 윤금숙의 존재 증명

윤금숙은 1949년 10월 「얼굴」(『민성』 5권 10호)로 등단하여 1960년대 후반까지 20여년간 70여 편이 넘는 단편소설과 수필을 발표하고, 창작집 『여인들』(1976)을 발간한 여성작가이다. 여성작가가 그다지 많지 않던 1950, 60년대에 활발한 작품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금숙은 다른 여성작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나마 윤금숙이 주로 언급될 때는 '여성 종군작가'를 다룰 때였다. 아마도 그 연구의 시작은 『민족의 증언』 7권에 실린 박계주의 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계주는 해군종군작가단의 창설 경위와 자신이 종군활동을 기록하며 '여류작가'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 51년 봄, 당시 해군참모부장인 김성삼 준장이 나에게 해군에는 해군 정훈음악대와 종군화가단이 이미 구성되어 있으니 작가단도 만들자고 교섭해 왔다. (중략) 이밖에 여자는 군함을 타지 못하게 되어 손소희·윤금숙 씨 등 여류작가들이 가입되어 있다가 이종환, 허윤석, 박용구, 박화목 씨 등과 교체가 되었다.[1]

1) 「해군종군작가단」, 『민족의 증언 7』, 《중앙일보》, 1983, 111-112쪽.

위의 글로 미루어볼 때 윤금숙이 처음 해군종군작가단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여자는 군함을 타지 못'한다는 이유로 곧 교체되어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함께 교체된 손소희가 육군종군작가단에 가입한 것과는 달리 윤금숙은 그 어느 종군작가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최독견이 쓴 「육군종군작가단」에는 1952년 5월 '단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윤석중, 유치환, 손소희, 하대응, 이호우 등을 증원'[2]하였다고 밝혔지만, 여기에 윤금숙의 이름은 없다. 또 육군종군작가단 기관지 『전선문학』은 2집 추기점검(秋期點檢)[3]에서 현회원의 명단을 정리하여 발표한 바 있는데, 그 명단에도 해군종군작가단에서 함께 거부된 '손소희'는 있지만 윤금숙은 등재되지 않았다.

또 『전선문학』(1-7집)에 손소희의 작품이 두 편[4]이나 실린 것에 비해, 윤금숙의 작품은 단 한 편도 실린 적이 없다. 이밖에도 육군종군작가단은 세 차례의 종군보고강연회와 9회의 '문학의 밤'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러한 활동 어디에서도 윤금숙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종군작가단과 관련해서 윤금숙이 한 일은 『해군 정훈문고 단편소설집 1 - 해양소설집』(1953)에 단편소설 「편지」를 게재한 것이 유일하다. 그러나 『해양소설집』은 해군본부 정훈국에서 발행한 것인데, 그곳에는 『만선일보』에서 같이 근무했던 염상섭이 있었고 또 굳이 종군작가단 소속이 아니어도 작품 게재는 가능했을 것[5]이므로 이것을 근거로 윤금숙이 종군

---

2) 최독견, 「육군종군작가단」, 『해방문학 20년』, 정음사, 1966, 92쪽; '좀더 강력한 구성원이 필요함으로 12월 1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신단원의 가입을 보았고 역원의 개선'도 하였다는 언급과 편성표에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볼 때 손소희가 육군종군작가단에 가입한 것은 1951년 12월로 보인다. 「작가단 결성과 사업」, 『전선문학』창간호, 1952년 4월, 39쪽.

3) 『전선문학』 2집 1952년 12월, 79쪽.

4) 「그날에 있은 일」(2호, 1952년 12월), 「거리」(5호, 1953년 5월)

5) 『해양소설집』에는 총 11명의 작가 작품이 실렸다. 그중 7명(공중인, 안수길, 이선구, 염상섭, 박연희, 윤백남, 이무영)은 해군종군작가단 소속이고, 2명(최태응, 곽하신)은 각각 육군과 공군작가단 소속이었다. 그런데 유치진과 윤금숙은 1953년 현재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았다.

작가였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 그렇다고 해도 윤금숙은 해군종군작가로 분류했어야 마땅한데 이미 '여자'라는 이유로 한번 교체된 바 있어 재가입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니시야마 준코는 「한국 여성 종군작가 연구」에서 '그 후 손소희, 윤금숙은 육군종군작가단에 가입했다.'[6]고 썼고, 엄미옥 역시 '손소희와 윤금숙은 부산에서 1951년 6월 결성된 해군종군작가단에 가입한다. 그러나 여자는 군함을 탈 수 없다는 이유로 이후 육군종군작가단에 들어가게 된다'[7]고 서술했다. 그러나 두 연구자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썼는지 그 어디에도 밝히지 않았는데, 아마도 해군종군작가단에 함께 있었던 손소희가 육군종군작가단으로 옮긴 사실을 토대로 윤금숙 역시 그랬을 것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윤금숙이 해군종군작가단에 가입했던 사실은 있으나 바로 거절당한 뒤 이후 육군종군작가단에 가입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군종군작가단에서 활동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윤금숙을 '여성 종군작가'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윤금숙에 관한 연구는 니시야마 준코와 엄미옥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편이다. 이 두 연구도 몇 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여성종군작가'라는 틀 안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우선 니시야마 준코는 윤금숙의 작품 중 전쟁 참여를 고무하는 작품으로 「바닷가에서」, 「동창생」, 「편지」를, 전쟁중 생활에서 취재한 작품에는 「물」, 「허망」을, 여성의 약함과 고민을 묘사한 작품에는 「행복」, 「여로」를 들어 분석하였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니시야마 준코는 윤금숙의 종군작가단 가입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손소희와 윤금숙의 경우 남편이 종군작가

6) 니시야마 준코, 「한국 여성종군작가 연구-한국전쟁기를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논문, 2002, 20쪽.
7) 엄미옥, 「한국전쟁기 여성 종군작가 소설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1, 한국근대문학회, 2010, 267쪽.

단원이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손소희의 남편 김동리는 공군 종군작가단원으로, 윤금숙의 남편 김송은 육군 종군작가단원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들의 종군작가단 가입 동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8)으로 보인다고 말해 윤금숙의 종군작가단 가입을 남편 김송과의 관련성 속에서 당연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주장은 엄미옥 역시 그대로 되풀이하고9) 있다.

엄미옥의 경우 한국전쟁기에 최정희, 장덕조, 손소희, 윤금숙, 전숙희 등 여성 작가들이 종군작가단에 가입한 동기 및 전쟁을 인식하고 형상화하는 방식을 들여다보았는데, 이 연구는 여성종군작가의 작품들을 본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데서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윤금숙의 경우 '종군작가'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지 않은 채 여성종군작가로 분류한 후 「동창생」, 「여로」, 「허망의 빛」10)의 작품 속에서 피난민 여성의 일상을 규율하는 논리에 반공주의가 미시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윤금숙을 거론한 논문들은 모두 그녀를 '종군작가'라는 프레임 속에 자리매김했다는 점, 또 그 틀 속에서 연구를 진행하려다 보니 당연히 전쟁기에 발표한 소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윤금숙은 단독으로 연구된 적이 한번도 없어 본격적인 작가론은 물론 작품의 목록 또한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문학사에서 이름만 간헐적으로 거론되었을 뿐 그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윤금숙의 생애를 재구해 보고, 이어 유일한 창작집인 『여인들』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윤금숙의 작품세계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

8) 니시야마 준코, 앞의 글, 8쪽.
9) 엄미옥, 앞의 글, 270쪽
10) 윤금숙 작품 중 「허망의 빛」은 없다. 내용으로 보아 「폐허의 빛」의 오기로 보인다.

2. 표류와 표착 사이의 삶

2.1. 윤금숙의 생애

윤금숙[11]은 1918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출생하였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책읽기를 유난히 좋아하여 많은 책을 탐독하고 '글'을 직접 써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 책 속에 파묻힌 온갖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눈의 초점에서 샛파란 불꽃이 튈 지경으로 글자와 씨름을 하다가도 문득 벽에 어른대는 검은 내 그림자에서 이상한 신비로움을 느끼는 대로 동요를 지어 보고 (중략) 여름밤 한길 전선대 밑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지껄대는 '거지' 아이들의 대화를 엿듣고 아동극 같은 것을 꾸며본 기억들은 돌이켜 보면 어지간히 글이라는 것이 짓고 싶었던 모양이다.[12]

그러나 창작에의 열정으로 가득찬 그의 환경은 너무나도 문학과 동떨어져 있었다. 당시 유행하던 「어린이」, 「별나라」, 「아희생활」 같은 아동잡지를 읽다가 부모님께 들키면 '잡지를 보면 계집애 버린다'는 꾸중과 함께 교과서 외에는 일절 보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1936년 용정 광명여고를 졸업한 윤금숙은 일본 명고옥(나고야)에서 교편생활을 하며 고학[13]하다가 다시 신경으로 와 『만선일보』 문화부에 입사한다. 이때가 1938년에서 1939년 경인 것으로 보인다.

> 취직도 일년이 멀다고 옮겨 앉고 그럴 적마다 고장도 바뀌어서 일본으로

---

11) 이 글에서 재구한 윤금숙의 생애는 윤금숙의 수필들과 『여인들』의 저자약력, 윤금숙의 두 번째 남편이었던 김송의 회고, 김송의 생애를 연구한 연구자(임무출)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12) 윤금숙, 「소설가가 된 동기와 이유」, 《세계일보》, 1959년 4월 2일.

13) 윤금숙, 『여인들—윤금숙 단편집』, 성공문화사, 1976. '저자약력'

신경 할빈으로 좀더 멀리, 좀더 색다른 곳을 찾아 전전하던 그때 닥치는 대로 문학서적을 탐독했다.

그러다가 표착(漂着)한 곳이 신경 만선일보(滿鮮日報)라는 신문사였다. 서울의 일등 편집국을 그대로 모짝 옮겨다 놓은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최남선, 염상섭 선생님 같은 분들의 지도를 받으며 내가 좋아하는 글을 다룰 수 있다는 기쁨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기쁨에 못지않을 정도였다.14)

용정에서 일본을 거쳐 '표류'하던 윤금숙이 잠시 '표착'한 곳은 바로 『만선일보』였다. 당시 『만선일보』의 고문은 최남선이었으며, 편집국장에는 염상섭, 사회부장 겸 학예부장은 박팔양이 맡고 있었다. 안수길, 신영철, 윤금숙이 기자로 활약했고, 그 뒤에 이갑기, 고재기, 손소희가 입사하여 윤금숙의 회고처럼 마치 경성 문단의 한 조각을 신경에 옮겨놓은 것 같았다15)고 한다. 윤금숙은 이 시기에 몇 편의 수필과 소품을 써서 최남선과 염상섭의 격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자랑할 정도로 창작의욕이 한껏 고무되었는데, 그 창작열은 '결혼'으로 인해 지속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금숙은 송화강 근처 할빈에서 '貧寒한 한 畫家의 아내'16)로 살다가 해방 이후 서울로 월남하였다. 윤금숙의 첫 번째 남편은 삽화 그리는 사람으로 아이 넷을 낳았지만 '무능'과 '외도'17) 때문에 이혼하고 그녀 혼자 아이 넷을 혼자 맡아 키웠다.

1948년 서울 소공동에서 '할빙' 다방을 운영18)하던 윤금숙은 다방의

14) 윤금숙, 「소설가가 된 동기와 이유」, 《세계일보》, 1959년 4월 2일.
15) 김병익, 「간도의 망명문단」, 『한국문단사 1908-1970』, 문학과지성사, 2001, 243쪽.
16) 윤금숙, 「송화강의 '할빈'」, 『민성』 5권 7호, 1949년 7월, 71쪽.
17) 박영준은 윤금숙 결혼 파탄의 원인이 남편의 '무능'이라고 말했지만, 이외에도 '어린것들을 팽개치고 여배우한테 미쳤'다는 윤금숙의 말을 통해 전남편의 '외도' 역시 윤금숙의 이혼에 큰 변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송, 「신문사 재직시절의 애환」, 『신동아』 1980년 5월, 385쪽.

단골인 박영준의 소개로 극작가 겸 소설가 김송을 만나게 된다. '할빙' 다방은 문화인 집합소 같은 분위기로 윤극영, 윤석중, 백영수, 채만식, 김원룡, 김영수, 박영준 등이 자주 찾던 곳으로, 윤금숙은 이곳에서 '가오'(얼굴) 마담으로 일했다[19]고 한다.

1949년, 김송은 '윤금숙을 지나치게 동정하고 그의 생활에 관심을 가진 끝에'[20] 서소문에 적산가옥을 마련하고 윤금숙의 아이들을 데려와 살게 한 후, 자신 역시 전재산을 두 번째 부인 조성녀에게 주고 결혼생활을 정리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김송은 바로 피난을 갔지만 윤금숙은 서울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9·28수복 때 자신을 찾아온 김송을 만난 후[21] 1·4 후퇴 때 함께 대구를 거쳐[22]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전쟁이 끝난 후 서울로 돌아온다. 이후 두 사람은 1970년 경 윤금숙이 돌연 김송 곁을 떠날 때까지 20여 년간[23] 부부로 함께 살았다.[24]

---

18) 이유식은 1948년 손소희와 전숙희가 운영하는 명동의 '마돈나'에서 윤금숙이 얼굴 마담으로 도와주었다고 서술한 바 있다. 이유식, 「문인들 단골 다방 족보를 알아보며」, 『문단 풍속, 문인 풍경』, 푸른사상, 2016, 312쪽. 이 글로 미루어볼 때 이 시기 윤금숙은 '할빙' 다방은 직접 운영하고, '마돈나'는 『만선일보』에서 함께 근무했던 손소희와의 인연으로 도와주었던 것 같다. 확실한 건 김송과 이유식 모두 당시의 윤금숙을 '얼굴마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19) 김송, 「자전적 문예반세기 5—해방전후와 『백민』 시절」, 『신동아』 1980년 4월, 259쪽.

20) 김송, 「자전적 문예반세기 6-신문사 재직시절의 애환」, 『신동아』 1980년 5월, 383쪽.

21) 윤금숙, 「잊지 못할 그날-묵은 일기에서」, 『자유문학』 3권 9호, 1958년 9월, 65쪽. 9·28수복 전날과 당일의 일기를 바탕으로 쓴 이 글에서 'S'로 불린 이가 바로 김송인 것으로 보인다. 윤금숙은 적치하에서 '꼭 살아야만 할 의욕의 전부는 S를 만나는 데에 있었다'라고 술회하였다.

22) 대구로 피난갔을 때부터 윤금숙은 실질적으로 김송과 부부로 함께 했다. 1950년 말 늦게 대구로 피난온 박영준은 거처할 곳이 없어 김송 집에 며칠 머무르는데 '가보니 부인 윤금숙 씨와 네 애가 들어 있는 셋방은 너무나 좁았다'고 회고한 바 있다. 박영준, 「종군작가 시절」, 강진호 편, 『한국문단이면사』, 깊은샘, 1999, 444쪽.

23) 임무출은 김송이 윤금숙과 함께 살던 이 시기(1950-1969)를 문학적으로는 '문학을 위해서 정열을 쏟은 시기'로 볼 수 있으나 '가정적으로는 불행'한 시기, 즉 '윤금숙을 맞이함으로써 스스로 불행의 늪에 빠지고' 만 시기라고 기록하였다; 「김송의 생애 연구」, 『한민족어문학』 16, 한민족어문학회, 1989, 318쪽.

24) 김송의 회고에 따르면, 1961년 윤금숙은 자신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은 채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다방을 차렸는데, 다방을 차린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권리금도 받지

윤금숙의 창작집『여인들』의 '저자약력'에는 1953년『민생공론』편집위원, 1955년『주부생활』주간을 역임했다고 쓰여 있다.『주부생활』은 윤금숙이 창간호부터 주간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데,『민생공론』은 같은 제호의 잡지를 찾을 수가 없어 작가가 잡지명을 착각[25]한 게 아닌가 싶다. 해방기부터 발행된 잡지들 중 '-공론'이라는 제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윤금숙은 1968년 창립된 한국여류문학인회에 명단을 올렸으나 구체적인 활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윤금숙은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용정, 일본, 서울 등을 표류하다가 잠시 김송 곁에 '표착'하기도 하였지만 또다시 일본과 미국 등지로 표류하여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2.2. '김송'과의 만남

김송과의 만남은 윤금숙의 삶에 큰 전환점으로 작용하였다. 우선 4남매를 데리고 홀로 생계를 꾸려가느라 힘들었던 상황에서 전재민 윤금숙은 김송이 거처를 마련해 준 덕에 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있었다. 게다가 윤금숙이 그토록 소망하던 소설 쓰기는 김송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또 용이했다. 김송은『백민』,『신조』,『서울신문』,『자유문학』등 많은 잡지와 신문을 편집하고 주간한 편집인 겸 소설가였기에 소설 쓰기의 열

못한 채 쫓겨났다고 한다. 상습사기단에게 말려든 것이다. 이 사건으로 김송, 윤금숙 가족은 셋방살이를 하게 되었다. 이후 윤금숙은 1965년 경 일본으로 시집간 큰딸 '봉자'의 산바라지를 하러 일본에 갔다가 1970년대 초 딸 내외와 아이를 데리고 돌아왔다. 그러나 어느날 김송이 '외출한 사이에' 윤금숙은 김송 곁을 아주 떠나버렸고, 이후의 행적은 창작집 약력란에 '1974년 미주여행'을 끝으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 단순히 '미주여행'인지 김송의 서술처럼 '막내딸과 윤금숙은 미국으로 이민 간 봉자(큰딸)의 초청으로 이민'간 것인지 확실치 않다. 김송,「<자유문학>을 만들던 전후」,『신동아』1980년 7월, 346쪽. / 김송,「고희에 되새겨본 뜬구름 세월」,『신동아』1980년 8월, 381-385쪽.

25) 사실 창작집『여인들』'저자약력'에 기록된「파탄」,「얼굴」,「불행한 사람들」의 작품 발표연도(1947, 1948, 1949년)는 창작시기나 실제 발표연도(1949, 1949, 1950년)와 다르다.

정만 있을 뿐 아무런 지면도 확보할 수 없던 윤금숙에게 작품 게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작품 제목	발표지	당시 발행, 편집 혹은 주간
「파탄」	『대조』 1949.7(확인불가)	박연희 편집
「얼굴」	『민성』 1949.10	박영준 편집
「불행한 사람들」	『백민』 1950.2[26]	김송 발행, 김광섭 주간, 박연희 편집
「대구의 하로」(수난기)	『전시문학독본』 1951.3	김송 편집
「물」	『신조』 1951.6	김송 주간, 편집국장 박연희
「절도」	『문화세계』 1953.9	『문화세계』[27]가 제정한 '독자문학상'과 '신인문학상'의 소설 부문 심사위원 중 김송 포함.
「잠재연정」	『청춘』 1954.3	김현송(김송의 동생) 발행, 김송 편집
「공의 거리」	『청춘』 1955.2	〃
「여인들」	『자유문학』 1958.6	김송 주간(1958.3-1950.6)
「정」	『자유문학』 1959.1	〃
「행로」	『교통』 1961.6	주간 박송(김송이 주간으로 있던 『자유문학』을 통해 등단한 시인). 김송 역시 『교통』에 소설 연재.
「어떤 추억」	『교통』 1963.4	〃

26) 1950년 2월에 발간한 『백민』은 창간 4주년 기념호이자 종간호였다. 당시 현역 작가들의 분포를 볼 수 있는 '현역작가 33인집'이 특집으로 실렸다. 여기에 단 한 편의 작품만 발표한 윤금숙의 소설이 실린 건 대단히 이례적으로 김송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하지 않았나 싶다.

27) 『문화세계』의 발행은 김종완, 편집은 곽하신이었다. 『문화세계』는 "1950년대 초반 문단을 양분하는 세력으로 자리매김했던 『문예』 중심의 작가들과 『백민』의 발행인이었던 김송이 금전적 어려움으로 발행권을 중앙문화인협회로 넘기면서 제호가 바뀐 『문학』 중심의 작가들이 골고루 포진"(김준현, 「한국전쟁기 잡지 <문화세계> 연구」, 우리문학연구 40, 2013, 433쪽)해 있었고, 『문화세계』가 중점을 둔 2개의 문학상 소설부문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김송이었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은 비교

위의 표는 윤금숙의 작품 발표지면과 발표 당시의 편집 혹은 주간을 확인한 후, 편집이나 주간 혹은 발행인이 김송이거나 김송의 지인인 경우만 정리한 것이다. 박연희는 『백민』을 통해 등단한 소설가로 김송과 『백민』과 『자유문학』 편집을 함께 했으며 김송이 '사망시까지 줄곧 같이 행동'[28]한 후배였고, 박영준 역시 윤금숙이 만주에 있을 때부터 알던 사이[29]로 김송과는 막역한 친분이 있어 윤금숙을 소개한 장본인이었다. 게다가 김송이 『백민』 4년, 『자유문학』을 3년간이나 편집, 발행하고 『서울신문』 문화부장까지 역임했다는 것은 이미 문단에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김송과 함께 살면서 윤금숙은 드디어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소설'을 쓰고 '소설가'가 되었다.

김송을 비롯한 몇몇 자료[30]에서는 윤금숙의 처녀작을 「파탄」으로 보고 있다. 윤금숙의 창작집 『여인들』에 실린 작품 말미에 쓰인 창작일자가 '1949년 봄'인 것을 보면 윤금숙이 가장 먼저 쓴 소설이 「파탄」인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대조』를 확인해 본 결과 「파탄」의 게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여러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조』[31]의 목차를 확인해 본 결과 이들 호에는 「파탄」이 실려 있지 않았다.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윤금숙의 공식적인 등단작[32]은 「얼굴」(『민성』 5권 20호, 1949.10)로 봐야 한다. 이후 1970년 여름 「늙은 카나리아들」를 마지막으로 약 20여년간 작품활동을 했는데,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윤금숙이 김송

적 컸다고 볼 수 있다.

28) 임무출, 앞의 글, 316쪽.

29) 박영준은 자신의 아내가 윤금숙의 언니와 진명여고 동창이라 윤금숙의 집안사정을 잘 안다고 언급했다. 김송, 「자전적 문예반세기 5—해방전후와 『백민』 시절」, 『신동아』 1980년 4월, 260쪽.

30) 김송, 「신문사 재직시절의 애환」, 『신동아』 1980년 5월, 383쪽. / 구명숙 외, 『한국여성작가 작품목록 :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역락, 2013, 241쪽.

31) 국회도서관 - 1946년 1월(1권 1호) / 국립중앙도서관 - 1947년 5월(2권 1호), 1947년 8월(2권 2호), 1947년 11월(2권 3호), 1948년 1월(3권 1호), 1948년 4월(3권 2호), 1948년 8월(3권 3호), 1948년 12월(3권 4호), 1949년 3/4월 합병호(4권 1호)

32) 권영민의 『한국현대문학대사전』(서울대출판부, 2004)와 한국어문화연구소 편, 『한국여성문인사전』(태학사, 2006)도 윤금숙의 등단작을 「얼굴」로 보고 있다.

과 함께 살던 때와 일치한다. 결국 윤금숙은 김송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소설가가 되었고, 김송 곁을 떠나던 1970년 전후로 하여 소설쓰기를 정리한 것으로 보아, 윤금숙의 소설 쓰기는 김송과의 만남과 시종(始終)을 같이한 운명적 선택이었다.

3. 경험과 기억의 재구

『여인들』에 수록된 소설 대부분은 자전적 글쓰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자전적 글쓰기는 소설의 한 형식으로서 작가의 실제적인 경험이 <허구>라는 소설적 장치를 통해 의미화되어 있는 것을 지칭'33)한다. 윤금숙 소설을 자전적 글쓰기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생애와 작품 속 인물의 삶의 궤적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과 작품이 창작된 시기와 작품 속 시공간적 배경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윤금숙이 해방 후 전재민으로 서울에 온 사건과 한국전쟁이 발발직후 피난민으로 대구를 거쳐 부산에 갔다가 전쟁이 끝난 후 환도한 행적 등이 작품 속에 그대로 전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주인공은 대부분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여성들은 대부분 남편의 외도나 폭행을 경험하거나 남성으로 인해 불행을 겪는 인물들이다. 이러한 인물들의 삶은 윤금숙의 수필이나 두 번째 남편 김송의 자서전을 통해 재구한 작가 자신의 행적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윤금숙의 소설은 자신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현실을 토대로 하거나, 그 과정에서 기억한 것들을 소설적으로 재구한 것으로 보인다.

3.1. 당대 현실의 고발

윤금숙 작품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꼽아볼 수 있다. 첫째는 당대 현

33) 김은영, 「여성의 자전적 글쓰기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4쪽.

실이 상당히 적나라하게 제시되고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이 겪는 삶의 애환이 작품의 주제로 전경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등단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창작한 작품들이 그러한데,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까지 서울, 대구, 부산 등 격변의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는 『만선일보』 기자와 『주부생활』 편집을 역임한 바 있는 윤금숙의 저널리스트로서의 시각과 태도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해방 후 귀환한 전재민과 한국전쟁 후 대구나 부산으로 피난온 피난민들이 직면한 가장 곤란한 문제는 바로 주거문제였다. 「파탄」, 「명동 주변」, 「허망」 등은 전재민과 피난민들이 겪는 최대 난제인 '집', 즉 정처를 문제삼고 있다.

> 낮이면 신호등이 우는 십자로까지 닥아왔을 때, 길 옆 큼직한 삘딩 앞 보도 위에는 무언지 쭉 깔린 것이 있다. 자세히 보니 가마니다. 꿈틀꿈틀 한다. 그 옆에는 지게가 벽에 기대여 있다. (중략) "매일밤 도회의 찬 꿈이 서리는 이불이랍니다. 나라가 암만 건설의욕에 불타드라도 오늘밤과 같은 사교장이 서울의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한편에는 또 야윈 몸덩이들이 의지할 지붕조차 없어서 이렇게 떨구들 잔다는 것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명동 주변」, 196쪽[34])

> '셋방에서 추방명령을 받았을 때마다 어린것을 업고 낯설은 이 골목 저 골목을 목표도 없이 헤매이며 아무개라고 뻐젓이 붙은 누구 집 문패를 바라볼 적마다, 그 앞에 오두마니 멈춰서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기웃이 엿보고 부러워하던 일을 생각하면, 이 집 한 채를 차지한 것이 혜숙에게 있어서는 한 나라를, 아니 한 우주를 온통 차지한 것보다 못지않게 즐거웠다.' (「허망」, 146쪽)

보도 위에 가마니를 덮고 노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첫 번째

34) 이는 창작집 『여인들』의 쪽수임을 밝힌다.

인용과, 1년 동안 네 번이나 이사한 끝에 도심에서 벗어난 집 한 채를 겨우 차지한 것이 '한 나라를, 아니 한 우주를 온통 차지한 것보다' 즐겁다고 표현한 두 번째 인용은 당시의 주택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1946년 11월 현재 노숙을 하는 전재민이 약 3,800여명, 주택이 필요한 전재민이 약 10만 세대[35]였다고 하니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주택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 피난지 부산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짓다가 만, 아직 시꺼먼 흙벽이 채 마르지도 않은'(「물」, 117쪽) 방이 월세 5천에 거래되고, '종이지붕에 비를 한번 겪고 나면 벽이 부실부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초라한'(「허망」, 135쪽) 산중턱의 하꼬방을 피난민들에게 임대하며 갖은 횡포를 부리는 피난지 부산의 현실은 피난민들의 생활상을 얼마나 곤궁하고 처참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가옥세(「허망」), 여성의 선거 참여 문제(「허망」), 중석불 사건(「절도」), 모자원(「절도」, 「폐허의 빛」), 댄스 열풍(「명동 주변」, 「여로」) 등 당대의 구체적인 현실을 작품의 주요 모티프로 수용하고 있어 주목할 만한다. 이에 김우종은 윤금숙 소설이 "해방 후 60년대 중반까지의 사회적 배경을 작품 속에 투영시켜 역사적 증인으로서도 문학사적 위치를 확보"[36]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3.2. 도식적인 인물 유형

윤금숙 소설의 두 번째 특징은 여성/남성, 피해자/가해자, 선/악, 희생/폭력 등 도식적인 인물유형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우선 윤금숙 소설 속 대부분의 남성은 상당히 부정적 인물로 공식화되어 있다. 그들은 유부남

35) 「귀국한국인의 생활실태」, 《동아일보》 1947년 1월 11일, 고바야시 에이오, 「해방 직후의 한국 노동운동」, 김정원 외,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돌베개, 1982, 449쪽에서 재인용.

36) 김우종, 「중년의 고독과 시대의 증언」, 『여인들』, 성공문화사, 1976, 372쪽.

임에도 불구하고 외도(「파탄」, 「얼굴」, 「들국화」, 「춘수」, 「물」, 「유혹」, 「정념기」, 「공의 거리」, 「정」, 「일기장」)를 일삼고, 아내에게 폭언 혹은 폭행(「얼굴」, 「불행한 사람들」, 「잠재연정」, 「여인들」, 「일기장」, 「단짝」)을 하는 등의 추악한 행태를 보인다.

> 영옥이의 남편은 어느 기생과 정분이 나서 가정을 통 돌보지 않을뿐더러 혹시 술이나 취해 가지고 바람과 같이 집에 들면 공연히 생트집을 잡고 가뜩이나 영양부족으로 골골하는 영옥을 차고 때리며 난폭하게 굴다가, 그만 한쪽 다리를 잘못 얻어맞은 것이 원인으로 복숭아뼈를 다쳐서 다리를 절룩거리게 되었다.(「불행한 사람들」, 50쪽)

「불행한 사람들」에 나오는 '식모'들은 모두 남편에게 소박당하거나 폭행당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다. 이들이 생계를 위해 택한 것은 '식모'밖에 없었고, 그조차 여러 명이 한꺼번에 지원하는 바람에 주인에 의해 선택당해야 하는 '피투성이의 어떤 처참한 운명'(54쪽)에 놓여 있다. 겨우 선택된 '서울 식모'도 결국엔 남편이 찾아와 폭행을 하며 데려가는 처지에 놓이고, 야학에 다닌다는 이유로 눈치를 받던 소녀식모 역시 주인집 딸과 싸웠다는 이유로 해고된다.

이 작품은 『백민』 '현역작가 33인집'에 실린 것으로 해방 직후라는 혼란한 현실 속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 고발하고 있다. 집없고 먹을 것조차 없는 힘겨운 일상에 가사와 양육, 노동을 하면서 남편의 폭력까지 감당해야 하는 여성은 여학교 선생을 했던 인텔리(영옥)나 식모 할것없이 모두 '피투성이의 처참한 운명'에 놓여 있다고 폭로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윤금숙의 작품 속 '남편'들은 「명동 주변」의 박효운처럼 월북하거나 「폐허의 빛」의 남편처럼 부역자로 실종되어 부재한 경우도 있다. 월북하거나 부역한 남성을 보는 작중인물의 시선은 한결같이 부정적이다. 「명동 주변」의 박효운은 '좌익계열의 선봉분자로 날뛰'다가 월북

했고, 「폐허의 빛」의 남편은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위해 자녀를 의용군으로 보낸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인물이다. 그들은 월북이나 실종의 형태로 부재함으로써 남은 '여성'에게 생계와 자녀 양육의 짐을 떠넘기는 존재들이다. 또 가정 내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물」의 '훈'처럼 부상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거나 「허망」의 '양서방'처럼 술에 취해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작품 속 '남성' 인물들의 경우 전쟁중 부상당해 육체적·정신적 불구자로 설정된 경우도 있다. 「물」의 '훈'은 오른팔을 잃은 후 후유증으로 발작을 일으키고, 「바닷가에서」의 박원근은 다리에 총상을 입어 불구가 되었고, 「행복」의 육군소위는 전선에서 시력을 잃는다. 이렇게 불구자인 남성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작가가 '건강한 남자의 부재, 즉 여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남성의 부재를 통해 여자들의 고독과 고생을 더 강조'[37]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윤금숙 소설은 '여성'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여성의 삶을 천착하였다. 유일한 작품집의 제목을 '여인들'로 붙인 것은 물론 작품의 주인공은, 한 작품[38]만 제외하고, 모두 '여성'이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불행한 비극적 삶을 살고 있다는 데서 공통적이다. 작품 속에서 여성은 '허무러진 형의 여인'/'갖은 풍상을 다 겪은 여인'(「들국화」), '아내로서의 낙오자'(「불행한 사람들」), '불행한 여자들'(「절도」), '희생의 산 제물'(「여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들은 오랜 동안 남성들에게 폭언, 폭력에 시달리거나 끊임없는 남편의 외도를 참아야 했고, 급기야 이혼하거나 이혼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은 남편과 분리된 이후에도 여전히 분노, 비참, 억울함을 토로하며 그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형식이라는 남편을 맞이한 이래, 얼마나 지긋지긋한 시달림을 견뎌왔던

37) 니시야마 준코, 앞의 글, 53쪽.
38) 「바닷가에서」는 박원근 병사가 화자가 등장한다. 이밖에 남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으로 「편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작품집에 실리지 않았다.

가. 챙피한 욕설 따위는 숫제 면역이 되어 야속할 것도 없고, 눈에 불이 번쩍 나도록 뺨을 맞던 일, 머리채를 휘여 잡혀 방안을 질질 끌려다니던 일들은 죽는 순간까지 잊을래야 잊을 도리가 없다.(「여인들」, 19쪽)

윤금숙 소설의 여성들은 대부분 남성들의 폭력의 희생자이면서 선뜻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운명이라고 체념하며 살아가고 있다. 즉 '女性이 主體的인 運命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연 예측할 수 없는 男性의 氣分 變化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것이 女性의 運命'[39]이라고 작가는 고발하고 있다.

나는 그때부터 모든 여성의 불행이 오로지 한 남성으로부터 시작되어 왔다는 여성의 역사를 자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여로」, 358쪽)

여성의 불행 혹은 비극의 원인 규명은 남성(주로 남편)의 폭력, 외도, 무능 등이 여성(아내)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다. 이런 자각은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라야 가능하고, 이러한 상황 판단은 곧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여성들과의 연대로까지 확장된다.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부산서 수많은 여류사업가와 알게 됐는데, 서울에 전쟁미망인을 위한 고아원을 세운다나…… 우리도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나 들어가서 우리 아이와 모든 불행한 여자들의 아이를 위하여 나머지 여생을 바쳐볼까?」 (중략)

「그게 가능성이 있는 말이야? 그럴 수만 있으면 좀 좋아. 전부터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용단을 못 냈는데 혜경이와 같이라면 내일이라도 갈 수 있어.」 (중략)

---

39) 김우종, 앞의 글, 367쪽.

「그렇지. 전쟁으로 폐허화한 조국을 위해서 우리도 '이바지'할 수 있는 한 인원이 될 테고……」(「폐허의 빛」, 181-182쪽)

1953년 가을에 창작된 「폐허의 빛」은 3년간의 피난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혜경이 옛친구 은희와 '모자원'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다짐으로 끝난다. 「절도」 역시 집안의 몰락으로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양공주'나 '절도' 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위기의 순간에 적절한 후원자를 만남으로써 전쟁으로 불행한 여성들을 위한 자선사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 여성들은 혼자서는 감히 꿈꿀 수 없었던 또다른 삶의 방식을 다른 여성과의 연대 속에서는 기꺼이 실현해 가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삶을 바꾸는 일에서 나아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의 재건사업에 '이바지'하는 일이고, 이는 "개인이 반공 국가의 국민으로 귀속되는 과정을 보여준다"[40]고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소설 속 대부분의 여성들은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모성'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 여자들은 내가 낳지 않은 자식이라도 남편을 위해 몇 명이고 거느릴 수 있지만 남자는 아내의 자식은 무슨 원수 취급을 하고 안 본다니 에미가 자식을 버릴 수야 있어.」(「폐허의 빛」, 178쪽)

재혼한 남편이 자신과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필요없고 은희만을 요구하자 은희는 아이를 위해 남편 곁을 떠나기로 결정한다. '여성성'보다는 '모성성'을 선택한 것이다. '모성'의 선택과 강조는 전쟁미망인과 고아들을 위해 '모자원' 사업에 투신함으로써 그 외연이 한층 확장된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전쟁 직후 "전후파 여성(혹은 아프레걸)으로부터 어머니(혹

40) 엄미옥, 앞의 글, 283쪽.

은 아내)의 회복을 요구"하고 "모성을 통해서 국가/민족/가정을 유지한다는 모성 민족주의"41) 이데올로기의 소설적 수용이라고 볼 수 있다.

3.3. 반공이데올로기의 수용

윤금숙 소설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에 부역한 문제를 다루거나, 전쟁을 독려하고 전의를 고취한 작품들을 통해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반공'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물」, 「동창생」, 「편지」, 「바닷가에서」, 「아들의 일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우선 「물」은 전쟁이, 특히 공산군이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잘 보여준 작품이다. '훈'은 서울의 중고등 교원으로 전쟁 초기 붉은 서울에 감금되었다. 공산당의 모략이나 허위성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훈은 "매일같이 갖은 술책을 다해서 학생들을 꼬여다간, 그 햇강아지 같은 소년들을 붉은 밧줄에 묶어 일선으로, 인해전술(人海戰術)의 앞잡이로 몰아 보내는 것이 교원의 직분임을 알고"(118쪽) 지하에 숨었다가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되던 날 인민군에게 붙잡혀 수감되었다. 이후 9·28 직전에 후퇴하는 인민군의 기관총 소사를 받고 쓰러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끝내 오른팔 하나를 잃고 만다. 이후 훈은 인민군의 총격과 동료들의 죽음이 준 정신적 충격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폐인이 되고 만다. 작품은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공산주의의 잔학성, 비인간성을 호소"42)한다.

전쟁중 훈의 부상과 후유증의 폐해는 곧 한 가정의 위기로 이어지고 그 짐은 고스란히 아내 정임에게 돌아온다. 정임은 피난지 부산에서 아픈 남편을 간병함은 물론 하루 종일 고리짝 공장에 다니며 노동을 해야 했고, 밤에는 식수를 구하기 위해 돌아다니다 성폭력의 위협을 당하기도 한다.

41) 주창윤, 앞의 글, 291쪽.
42) 니시야마 준코, 앞의 글, 39쪽.

>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개 옷주제 얼굴주제들이 모두 최저생활에서 허덕이는 똑같은 몰골들임을 볼 때, 피난민이 대부분인양 싶었다. 한 개의 물통마저 없어서 새까맣게 그스른 냄비,솟, 깡통들도 물통 대신 늘어놓았다. / 수돗물 차례가 온 앞턱에선 물통 부딪는 소리, 옥신각신 선후를 다투어 악을 쓰는 소리, 이곳에도 무기없는 전쟁은 벌어진 모양이었다.(120쪽)

위의 인용은 '물'을 얻기 위한 소란을 '무기없는 전쟁'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전쟁은 전후방 따로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안을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증명하는 대목이다.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부장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여성이 그 모든 짐을 짊어진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하는데,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원흉이 바로 전쟁과 그 전쟁을 일으킨 인민군에 있다고 본 것이다.

「동창생」 역시 전쟁중에 씌어진 소설로 '부역'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영실은 여학교 동창이자 부역자인 은영에게 극도의 적개심을 드러낸다.

> 나는 직접 은영이 같은 부역자(附逆者)의 피해를 받은 사람이니까…… 납치당해 간 남편(국회의원)을 생각할 땐 나는 동창생이 아니라 내 친동기간이라도 빨갱이라면 영원히 적이야 적! (중략) 여성동맹 위원장으로 사형언도까지 받은 저런 독사(毒蛇)의 무리들은, 또 '아첨'이라는 술법으로 저와 같이 호화스러운 채림새를 하고 거리를 대 활보하는 대한의 자유 천지가, 어째 나한테는 이리도 악착스럽게 연명하기조차 힘들까? 아아!」(353쪽)

은영은 여성동맹 위원장으로 사형언도까지 받았다가 석방된 인물로, '빨갱이', '적', '독사', '아첨' 등 부정적 단어로 표상되고 있는데 이는 공산주의에 부역했다는 이유에서 비롯된다. 가해자인 은영은 '까만 베르벳트 치마에 연분홍 저고리'를 입은 채 부산 시내를 활보하고 있는데, 정작 남편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피해자가 된 영실은 '흰 옥양목 저고리'를 입고 뜨개질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가해자가 여전히

득세하고 피해자는 힘겹게 살아가는 현실을 고발하며 인민군에 협력한 부역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다시 사회로 복귀한 것을 원색적인 언어를 비판하고 있다.

부역자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다른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로」의 부역자는 유부남과 외도를 즐긴 부도덕한 여성으로 설정되었고, 「폐허의 빛」의 부역자 역시 자신의 안위와 보신을 위해 자녀를 의용군에 넘긴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인물로 묘사되었는데, 두 인물의 종말도 '월북' 혹은 '총부리에 쓸어졌'거나 행방불명으로 처리하고 있다. 부역자들을 파렴치하고 부도덕하며 비윤리적인 인물로 설정하거나 부정적 결말로 처리한 점 등은 모두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편지」와 「아들의 일기」는 직접적인 언술로 전쟁을 독려하고 전의를 고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편지」는 해군본부 정훈감실에서 발행한 『해군 정훈문고 단편소설집 1-해양소설집』에 실렸는데, 이 책은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목표'로 '장병들의 정훈교재로서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발행'[43]된 것으로 보인다. 전투가 한창 진행중인 38경계선 근처의 ××고지를 중심으로 두 이등병조의 '편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주 내용이다.

> 크리스마스를 기념할만한 대전과가 있어주기를 빌 뿐이애요. 언제나 저 원수의 삼팔선, 우리 겨레를 숨맥히게 하는 굳은 장벽이 허물어져서 남북통일의 소원이 이루워질까요. 저도 힘껏 공부하겠어요. 일선에서 용감히 싸우고 있는 오빠를 생각하고 분투 노력하겠어요. 그럼 오빠의 눈부신 전공과 아울러 건강을 빌며 이만 끄치겠습니다.(119)

「편지」는 일선 군인들의 생활상과 실제 전투장면을 그대로 중계함으로써 전쟁의 참혹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누이동생의 편지를 통해 전

43) 신영덕, 「한국전쟁기 해군 정훈문고 『해양소설집』의 특성」, 『전쟁과 소설』, 역락, 2007, 163쪽.

쟁을 독려하고 있다. 즉 전방에서 싸우는 군인들의 전의를 고취하고, '아들'과 '오빠', '애인'을 전장에 보낸 후방의 여성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작품이다. 이와 유사한 작품으로 「아들의 일기」를 들 수 있다.

「아들의 일기」은 『희망』(1953.7)에 실렸다가 이후 국방부 정훈국에서 발행한 『전시한국문학선-소설편』(1954)에 재수록된 작품이다. 유씨 부인은 24살 때 남편을 잃고 오직 아들만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인물이다. 현재 그 아들은 일선에 가 있고 유씨 부인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아들이 입대하기 전 자신의 일기장을 유씨 부인에게 주고 가고, 그 아들은 결국 한 장의 전사통지서로 돌아온다.

> 싸우는 나라의 용사들, 그 어느 누군들 귀한 어버이의 자식이 아니리요, 눈 쌓인 산골에서 혹은 바람 거센 강기슭에서 피를 뿜고 가버린 아들이건만 이제나 저제나 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들—유씨 부인도 그런 어머니의 한 사람이었다.(밑줄 인용자, 315쪽)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자 유일한 가족을 잃은 유씨 부인은 아들의 전사로 피난지 부산에 홀로 남겨졌다. 그러나 그것은 유씨 부인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과 함께 하는 운명이다. 싸우는 나라의 어머니들은 아들을 전장에 내보내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그 어떤 결과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유씨 부인 역시 '그런 어머니의 한 사람'일 뿐이고,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만 여성은 국민으로 (재)탄생할 수'[44] 있는 것이다.

「바닷가에서」는 전우애와 애국심을 고취한 작품이다. '나'(박원근)은 전선에서 총상당해 다리를 절단한 병사이다. "병신 몸이 되어서 다시 일선으로 나가지 못할 바엔 차라리 죽은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군인

44) 김양선, 「반공주의의 전략적 수용과 여성문단」, 『어문학』 101, 한국어문학회, 2008, 354쪽.

정신이 투철한 '나'는 애인인 영실이 부상당한 자신에게 실망할까봐, 또 영실의 행복을 위해 연락을 끊었다. 그러나 영실이 치료소로 나를 면회 온다.

> 원근 씨는 제가 그 부자유한 몸에 실망을 품을 줄로 아셨지요? 그렇게까지 저를 몰라주시는 원근 씨를 저는 얼마나 찾어다녔는지…… 원근 씨는 아마 부상당하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틀린 생각이 아닐까요? 싸우는 나라의 젊은이로서 총대를 메어보지도 못하고 또 몸뚱아리에 총알 자욱이 없다는 것은 도리어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저는 원근 씨의 다리 노릇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쫓아오지 않았어요. 원근 씨의 조국을 위한 일편단심이 변치 않듯 원근씨를 위한 저의 마음도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253-254쪽)

'나'를 꾸짖는 영실의 목소리는 「편지」의 누이동생과 동일하게 교조적이고 계몽적이다. 일선의 병사는 병사대로, 후방의 여성은 여성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가야 논리다. 아들과 오빠, 애인인 병사들은 적극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고, 어머니와 누이와 애인은 후방에서 그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며 전투의지를 앙양시켜야 하는 것이다.

전쟁을 다룬 윤금숙의 소설들은 대부분 전투를 독려하고 일선병사의 전의를 고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어머니, 애인, 누이동생 등의 여성들은 자신의 맡은 일을 하며 아들, 애인, 오빠의 건투와 전승을 빌고 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편지」와 「아들의 편지」에서는 이이등병조와 아들의 '죽음'을, 「물」과 「바닷가에서」는 훈과 박원근이 팔과 다리에 각각 총상을 입어 부상당한 것으로 묘사하여, 그 어떤 전쟁도 비극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4. 맺음말

그동안 윤금숙은 여성종군작가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해군종군작가단에 입단한 후 윤금숙은 여성은 배를 탈 수 없다는 이유로 손소희와 함께 다른 작가와 교체되었는데, 이후 손소희와는 달리 육군종군작가단에 가입했거나 활동했던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윤금숙을 여성종군작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윤금숙의 등단작을 「파탄」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한 윤금숙의 첫 번째 발표작은 「얼굴」(1949)로 봐야 할 것이다.

윤금숙의 생애 중 또하나 주목할 점은 김송과의 만남이다. 윤금숙은 김송을 만나면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했음은 물론 그토록 원하던 '소설 쓰기'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그녀는 1949년부터 1970년까지 약 20여년간 작품활동을 했는데,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윤금숙이 김송과 함께 살던 때와 일치한다. 이는 윤금숙의 소설 쓰기가 김송과의 만남과 시종(始終)을 같이한 운명적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윤금숙 소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당대 현실이 상당히 적나라하게 제시되고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이 겪는 삶의 애환이 작품의 주제로 전경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여성/남성, 피해자/가해자, 선/악, 희생/폭력 등 인물 유형이 상당히 도식적이라는 점이다. 윤금숙은 집중적으로 여성의 삶을 천착하였는데, 작품 속 여성들은 대부분 불행한 삶을 살고 있고, 그 이유가 '남성'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셋째는 한국전쟁 당시 공산군에 협력한 문제를 다루거나, 전쟁을 독려하고 전의를 고취한 작품들을 통해 당대의 지배이데올로기인 '반공'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그녀가 끊임없이 '여성'의 삶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당대 현실을 고발하건 가부장제나 반공 등 지배이데올로기에 충실하건 그 중심에는 항상 '여성'이 자리잡고 있었고, 그들의 경험과 기억을 재구한 것이었다. 따라서 유일한 창작집 제목이 '여인들'인

것은 참으로 적절해 보인다.

1964년 10월『문학춘추』(1권 7호)는 '현역작가 50인집'을 기획하였는데, 윤금숙은 여기에「젊은 주변에서」를 발표하였다. 이후 간헐적으로 작품을 발표하더니 결국 '1970년 여름'이라고 창작일자를 부기한「늙은 카나리아들」을 끝으로 그녀는 '현역'의 자리에서 내려와 홀연 행방을 감추었다. 어쩌면 그녀는 잠깐의 '표착'을 끝내고 또다시 '표류'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다.

참고문헌

1. 자료

윤금숙,『여인들—윤금숙 단편집』, 성공문화사, 1976

윤금숙,「소설가가 된 동기와 이유」,《세계일보》, 1959년 4월 2일.

윤금숙,「송화강의 '할빈'」,『민성』5권 7호, 1949년 7월.

윤금숙,「잊지 못할 그날-묵은 일기에서」,『자유문학』3권 9호, 1958년 9월.

『전선문학』2집 1952년 12월.

김송,「자전적 문예반세기 1-8」,『신동아』1979년 12월-1980년 8월.

권영민의『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출판부, 2004.

한국어문화연구소 편,『한국여성문인사전』, 태학사, 2006.

「해군종군작가단」,『민족의 증언 7』,《중앙일보》, 1983.

최독견,「육군 종군작가단」,『해방문학 20년』, 정음사, 1966.

2. 단행본

김우종,「중년의 고독과 시대의 증언」,『여인들』, 성공문화사, 1976, 365-372쪽.

구명숙 외,『한국 여성작가 작품목록 :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역락, 2013, 241쪽.

김정원 외,『한국현대사의 재조명』, 돌베개, 1982, 449쪽.

김병익, 「간도의 망명문단」, 『한국문단사 1908-1970』, 문학과지성사, 2001. 243쪽.
이유식, 「문인들 단골 다방 족보를 알아보며」, 『문단 풍속, 문인 풍경』, 푸른사상, 2016, 312쪽.
강진호 편, 『한국문단이면사』, 깊은샘, 1999, 444쪽.

3. 논문

니시야마 준코, 「한국 여성종군작가 연구-한국전쟁기를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논문 2002, 1-111쪽.
김은영, 「여성의 자전적 글쓰기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37쪽.
임무출, 「김송의 생애 연구」, 『한민족어문학』 16, 한민족어문학회, 1989, 301-328쪽.
김은경, 「한국전쟁 후 재건윤리로서의 '전통론'과 여성」, 『아시아여성연구』 45, 2006, 7-48쪽.
김양선, 「반공주의의 전략적 수용과 여성문단」, 『어문학』 101, 한국어문학회, 2008, 333-357쪽.
주창윤, 「1950년대 중반 댄스 열풍-젠더와 전통의 재구성」, 『한국언론학보』 53권 2호, 2009, 277-299쪽.
엄미옥, 「한국전쟁기 여성 종군작가 소설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1, 한국근대문학회, 2010, 261-292쪽.
김준현, 「한국전쟁기 잡지 <문화세계> 연구」, 『우리문학연구』 40, 2013, 431-458쪽.

Abstract

Life between drifting and settlement
: Focusing on *The Women* by Yoon Keum-Sook

Lee, Byung-Soon

Although Yoon Keum-Sook was a writer who actively wrote her works in the 1950s and 1960s, her works have not been studied solely so far. Also, Yoon is known only as a Korean War women writer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capitulate the life of Yoon Keum-Sook, and to illuminate the author's work focusing on her collection of works, *The Women*.

Yoon Keum-Sook is known only as a Korean War women writer, but she had joined Authors Under the Service of the Navy but rejected because she is 'a woman.' It is my assertion that previous studies, which have been defined Yoon as author of Authors Under the Service of the Army, should be reconsidered because there is no record indicating Yoon had joined or worked in Authors Under the Service of the Army.

Focusing on *The Wom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Yoon Keum-Sook's novel can be summarized roughly into three facts. Firstly, the reality of the time such as the liberation of the motherland or the war is presented in a very concrete way, and the hard life of the characters living in the reality is the subject of the work. Secondly, types of character in Yoon's novel are highly schematic: woman/man, victim/perpetrator, good/evil, sacrifice/violence. Women

characters in Yoon's novel mostly live miserable lives, which comes from a premodern view of women based on 'masculine' patriarchal ideology. Lastly, Yoon's *The Women* reveals the anti-communism that is the ruling ideology of the time, in that it deals with the problems of the people who collaborate with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during the Korean War. Also, the novel contains stories that encourage war and imbue people with will to fight against their enemy.

Key words : Korean War women writer, *The Women,* Authors Under the Service of the Navy, schematic figure, Korean War, The anticommunist ideology, Drift, settlement

■ 본 논문은 2017년 3월 15일에 접수되어 2017년 3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7년 4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